

## 지하철 한글 역명의 중국어 표기에 대한 고찰\*

강경구\*\*

### 【목 차】

1. 서 론
2. 골의 번역
3. 고개, 재 등 山系 역명의 번역
4. 水系 역명의 번역
5. 결 론

### 1. 서 론

현재 중국과의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혹은 각 기관별로 중국어표기를 병기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지명의 중국어 표기에는 로마자 표기<sup>1)</sup>와는 다른 문제들이 뒤섞여 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과거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부분적으로 국한문을 혼용하고 있는 언어 환경에 기인한다.

우선 한자어로 된 지명의 표기는 별 문제가 없다. 그것은 南大門과 같이 기본적인 음성정보와 의미정보를 함께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자 표기의 Namdaemun(Gate) 처럼 후부 보통명사에 대해 의미역을 덧붙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한글 지명의 경우이다. 이것을 음역하여 음성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의미역을 통해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동의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의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kkang@deu.ac.kr)

1) 로마자 표기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어문규범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관광부 고시 제 2000-8호, 2000. 7. 7.)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립국어연구원의 이 로마자 표기안을 기준으로 국가지명위원회(국토지리정보원) 및 각 지자체 지명위원회, 각 기관별 지명위원회를 통해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마자 표기안은 얼마간의 반대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보편적 원칙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명유래를 전달할 것인가? 음역과 의미역을 병행할 것인가?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지명의 중국어 표기원칙<sup>2)</sup>을 수립하는 일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지명의 중국어 표기와 관련하여 ‘한자가 없는 지명이나 도로명의 경우 최대한 의미역하여 그 유래를 보존한다’는 원칙<sup>3)</sup>을 세운 것으로 밝히고 있다. 본 고찰의 주된 대상이 되는 지하철의 한글 역명의 중국어 표기에도 서울시의 이 원칙이 준용된 것으로 얘기된다. 그것은 한국지명의 중국어 표기를 위한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하나의 출발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명에 대한 중국어 표기의 목적이 중국인의 입장에서 지형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인이 발음하고 인지하게 될 번역어가 해당 지명의 음성정보 및 의미정보를 적절하게 전달하는지 하는 점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원음전달은 지명표기의 제1원칙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국어 로마자 표기원칙<sup>4)</sup>과 중국지명위원회에서 펴낸 「外国地名汉字

2) 서울시는 그 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식명은 한국관광공사, 문화재는 문화재청, 도로명은 안전행정부의 표기 기준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서울시는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자료를 축적해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http://dictionary.seoul.go.kr/> 및 <http://www.ddokbaro.com/3703>(2015.04.01.).

3) 서울시의 중국어 표기기준은 상당히 구체적이지만 이 기준의 제정에는 이후 보다 학문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의역을 원칙으로 하되 과거에 사용했던 한자 명칭이 현재 사용하는 명칭과 너무 상이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새로운 의역과 음역을 병행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면서 까치울의 표현을 옛 한자명칭인 鵲洞 대신 喜鵲屋으로 표기한다는 예를 든다. 중국인들에게 鵲洞은 통하지 않고, 喜鵲屋은 통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 「3. 고유명사」 ‘마’조에 한자명칭이 존재하나 현재 사용하는 명칭과 너무 상이하거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은 실용성을 고려해 음역한다는 예외조항을 둔다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는 그 예로 장승배기→长丞拜基, 고인고개→古仁岭 등을 들고 있다. 배기→拜基, 고인→古仁으로 음역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말로 읽는 한자발음이지 중국어 음역이라 할 수 없다. 우리말 한자독음을 중국어와 혼동한 것이다. 그것은 새절역에 대해 賽折로 음역하고 원래 한자어인 新寺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새절역은 새로운 절(新寺)을 의미하나 3호선 신사(新沙)와 한자독음이 같아 음역으로 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賽折은 정확한 음역이라 하기 어렵다. 또 뜻에 있어서나 발음에 있어서 중국인들에게 新寺가 新沙와 혼동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요컨대 서울시에서는 중국어 번역과 우리말 한자병기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중국어표기기준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이체자의 경우, 현대중국한자로 바꾸어 사용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水踰를 水逾로 바꾸었다는 예를 든다. 踰는 한국한자라는 것이 그 이유로 제시되어 있다. 수유동은 이미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어 있는 고유명사이며, 이에 대해 일관되게 水踰로 써왔다. 이것을 水逾로 바꿀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다. 더구나 踰와 逾는 중국에서 통용되는 관계에 있는 글자이지 한국에서만 쓰는 한자가 아니다. 더구나 한·중·일의 이체자에 대해서는 현재 한·중·일의 전문 학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것은 문자정책의 주체성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느 한 쪽으로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지명의 중국어표기는 중국인을 위한 것인 동시에 한국의 한국다움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지명표기원칙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시지명표기원칙에 대해서는

<http://dictionary.seoul.go.kr/spelling/html/page/notation2>(2015.05.05) 참조.

4)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은 1937년 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장이던 조지 매킨과 하버드대 에드윈 라이샤워 교수가 함께 만든 ‘매킨-라이샤워(MR)’ 표기법이 국내외에서 주로 사용되다가 2000년 우리 정부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MOE)’으로 개정 고시했다. Pusan→Busan, Kwangju→Gwangju 등으로 우리 발음에 근접한 발음으로 표기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 표기법은 2011년 유엔 지명 전문가 회의(UN GEGN)에서 미국과 영국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겠다고 통보함으로써 국제적이나 공인을 받게 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http://blog.daum.net/ironcow6200/8504101> (2015.03.02.)참조

译写通则」<sup>5)</sup>에 제시된 원칙에서는 공히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함을 제1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선 우리 지명에 대한 로마자 표기의 제1원칙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함’<sup>6)</sup>이다. 이에 따라 ‘신라’를 ‘Silla’로 표기한다. 음소에 따라 ‘Sinla’로 표기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원음대로 발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강서소방서길’을 ‘Gangseo Fire Station-gil’로 표기하지 않고 ‘Gangseosobangseo-gil’로 표기할 정도로 그 원칙의 적용이 철저하다. 중국지명위원회에서 제시한 외국지명 표기의 제1원칙 또한 ‘음역을 원칙으로 함’<sup>7)</sup>에 있다.

따라서 순수 우리말 지명을 중국어로 옮기면서 의역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서울시의 원칙 수립과 실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지명표기원칙과 중국의 「外国地名汉字译写通则」에 공히 위배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는 이미 순수 우리말 지명의 중국어 표기와 관련하여 한 차례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바 있다. 2005년 1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순수 우리말 지명인 서울을 首尔로 표기하며 수백 년 간 사용돼온 서울의 중국어 표기인 汉城을 폐기한다고 선언하고 중국 측의 협조를 구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학계나 일반인들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2005년 10월 중국정부는 「民政部·外交部关于韩国首都汉城中文译名变更为首尔的通报」를 각 기관에 발송하여 이의 사용을 공식화하였다. 서울시의 선언이 2005년 1월에 있었고, 외교라인을 통한 요청이 2월에 있었다는 점, 그것이 오래된 언어관행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정부의 조치는 빠르면서도 강력한 것이었다. 汉城을 폐기하고 首尔로 표기해달라는 서울시의 원칙을 수용함에 있어서 중국정부가 근거로 한 원칙 역시 「外国地名汉字译写通则」에 제시된 바, 음역원칙에 근거한 것이었다. 즉 ‘외국지명의 표기는 음역을 위주로 하며 정확성과 규범성을 추구하고, 습관화된 번역명칭을 적절히 고려한다’<sup>8)</sup>(제2조)는 원칙에 따라 서울을 首尔로 표기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수용한다는 것<sup>9)</sup>이었다. 그에 대한 구체적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5) 1978년 中国地名委员会의 공식안으로 채택되어 공표되었으며 현재까지 외국지명을 표기하는 원칙으로 수용되고 있다.

6) 물론 구체적 실천과정에서 의역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남산’을 ‘Namsan(Mountain)’, 한강을 ‘Hangang(River)’ 등으로 표기한 것은 그 탄력적 운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 할 수 있다.

7) 第一条: 译写外国地名, 以中国地名委员会制定的有关规定为依据. 第二条: 外国地名的译写应以音译为主, 力求准确和规范化, 并适当照顾习惯译名. 中国地名委员, 「外国地名汉字译写通则」 그 밖에 뚜렷한 지형적 특징이나 방위 등을 지명으로 삼은 경우, 일반명사, 형용사, 인물의 작위 등이 지명에 포함된 경우 등에 대해 의역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자세하게 마련하고 있다.

8) 第二条: 外国地名的译写应以音译为主, 力求准确和规范化, 并适当照顾习惯译名. 「外国地名汉字译写通则」, 民发〔2005〕(149号 2005年10月13日).

[http://wenku.baidu.com/view/19e03704cc17552707220825\(2015.04.01.\)](http://wenku.baidu.com/view/19e03704cc17552707220825(2015.04.01.)) 참조.

9) 1981年中国地名委员会制定的「外国地名汉字译写通则」, 第三条指出“各国地名的汉字译写, 以该国官方文字名称为依据”; 第二条指出“外国地名的译写应以音译为主, 力求准确和规范化, 并适当照顾习惯译名”; 在当今世界上, 英、法、德、西班牙、意大利和俄罗斯等语言无一例外地对韩国首都采用seoul这一拼写. 鉴于1946年韩国官方已经确定将首都的名字改为seoul这一情况, 将其中文译名改为“首尔”, 符合外国地名译写的“名从主人”的原则和我国对外国地名以音译为主的规则, 也符合世界上的普遍做法. 「民政部、外交部关于韩国首都汉城中文译名变更为“首尔”的通报」, 民发〔2005〕(149号 2005年10月13日),

[http://dms.mca.gov.cn/article/flfg/xzfg/201407/20140700663338.shtml\(2015.03.21.\)](http://dms.mca.gov.cn/article/flfg/xzfg/201407/20140700663338.shtml(2015.03.21.))

1. 한국 측의 요구를 존중하여 한국의 수도에 대한 중국어 번역명칭을 ‘首爾’로 변경한다. 각 기관에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과도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동안 ‘首爾(漢城)’과 같이 괄호로 병기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2. 한국의 수도명칭이 언급된 기 출판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도서, 교재, 지도 등 관변 출판물의 신판 및 재판을 낼 경우 한국의 수도에 대한 번역어를 교체해야 한다.
3. 신화사에서는 한국 수도의 번역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뉴스로 통보하며, 각 매체는 이에 대해 논평하거나 논쟁하지 않도록 한다.<sup>10)</sup>

이 일은 순수 한국어 지명의 중국어 표기에 하나의 대원칙이 될 만한 상징적 사건이 될 수 있다. 서울을 漢城으로 의미역하는 대신 首爾로 음역한다는 대원칙이 세워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지명의 로마자 표기방안과 중국의 『外國地名漢字譯寫通則』의 제1 원칙과도 부합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순수 한국어 지명에 대한 중국어 표기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여 의미역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지명의 유래를 담고 있는 한자어가 명명요소로 들어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전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현행 중국어표기의 현황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체방안을 모색해보며, 그 원칙의 수립에 제기될 수 있는 조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골의 번역

순수 한글 역명<sup>11)</sup>의 중국어 번역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골’에 대한 번역이다. 우리 지명에서 산과 산, 구릉과 구릉 사이에 으늑하게 자리 잡은 마을을 ‘~골(고을)’이라 부르는데 이 ‘골’은 보통 洞과 谷으로 표기된다. 대체적으로 洞은 그곳에 형성된 마을을 부각시키고, 谷은 골짜기의 지형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2)</sup> 우리나라의 경우

10) 一、尊重韩方的愿望,将韩国首都中文译名变更为“首尔”.各使用单位具体实行时可视情况采取过渡措施,如在一段时间内采用“首尔(汉城)”括注标记方式.. 二、对已出版的涉及韩国首都名称的出版物,不作处理.图书、教材、地图等官方出版物今后新版、再版时,就韩国首都中文译名作出修改. 三、新华社将就变更韩国首都中文译名事宜发新闻通稿,各媒体不评论,不炒作.『民政部、外交部关于韩国首都汉城中文译名变更为“首尔”的通报』,

<http://dns.mca.gov.cn/article/flfg/xzfg/201407/20140700663338.shtml>(2015.03.21.)

11) 서울시가 568돌 한글날인 9일을 맞아 서울 지하철 1~9호선 중 우리말로 된 역명을 8일 설명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서울 지하철 전체 302개 역 중 29개 역(9.6%)이 한글 이름이거나, 나루·여울 등 한글을 포함한 이름이었다. 역 이름이 한글로 돼 있거나 한글이 포함된 경우가 가장 많은 노선은 7호선(51개 역 중 6개 역)이었다. 음성원, 『버티고개 가서 앓을 놈--지하철 역이름 속 재밌는 역사』, 『한겨레신문』(2014.10.08.)

<http://cafe.daum.net/sisadebate>(2015.05.05.)

12) 洞은 깊은 계곡(洞, 幽壑也)으로서 그곳에 형성된 작은 마을을 가리키는 경우(靈源洞在長樂縣東)가 많다. 이에 비해 谷은 물이 나와 시내를 이루는 출발지점(泉出通川曰谷)을 가리키며 마을을 가리키

산지가 많아 ‘~골’로 불리는 취락이 다수를 점하게 되었다. 이 ‘~골’로 불리던 지명들은 행정구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洞으로 표기된다.

지하철 역명의 경우 ‘골’은 谷로 표기되어 있다. 원음표기를 원칙으로 한다면 이 후부 보통명사 ‘골→谷’의 중국어 번역은 뜻과 발음을 동시에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성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전부 구성요소를 음역할 것인가, 의미역할 것인가에 있다. 음역을 한다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英汉译音表』(논문 뒤 자료 첨부)<sup>13)</sup>를 우선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의미역을 원칙으로 한다면 기존의 한자 명칭이 있었는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골’의 ‘ㄱ’ 받침의 음가를 구현하는 방법도 적극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골’로 명명된 지하철 역명을 구체적 실례를 살펴보면 부산 지하철 1호선의 범내골→凡內谷, 2호선의 못골→池谷, 지게골→支架谷, 3호선의 물만골→水滿谷, 서울 지하철 7호선의 먹골→墨谷 등이 있다. 우선 부산 지하철 1호선의 범내골(118)<sup>14)</sup>→凡內谷이 있다. 범내골 역에 소개된 지명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범천은 甌山에 인접한 산들이 산세가 험하고 산림이 울창하여 호랑이가 서식하였는데, 호랑이가 이 계곡에서 자주 출몰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따라서 범천은 한자식으로 虎川이라고도 표기하였다. 따라서 범천동이라는 동명은 凡川에서 유래되어 범내골을 중심으로 그 인근의 지역을 지칭하는 동명이 되었다.<sup>15)</sup>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얻게 된다. 우선 범내가 범이 출몰하는 시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라는 점, 그래서 한자로 虎川으로 표기되기도 했다는 점, ‘범’의 발음, ‘내’의 뜻을 따서 凡川<sup>16)</sup>으로 표기되어 왔다는 점, 그래서 행정구역상 현재 이곳이 범천동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의미역을 원칙으로 한다면 虎川이 우선 고려될 수 있다. 그런데 이곳은 현재 凡川, 혹은 凡川洞이라는 한자명으로 통용되는 곳이다. 虎川 보다는 凡川洞이라는 한자 명칭이 더 넓은 통용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의미역을 한다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凡川, 혹은 凡川洞으로 돌아가야 한다.

는 예로 쓰인 경우는 드물다. 우리의 경우에도 文忠公 포은 정몽주 선생의 고향 마을을 文忠洞으로 하고, 그 골짜기를 文忠谷으로 표기한 예가 있다. 洞과 谷의 뜻에 대해서는 中華學術院(1973), 『中文大辭典』, 華崗出版有限公司 참조.

- 13) 1983년 중국 국무원 산하 地名委员会에서는 『外国地名译名手册』을 출판하였고, 新华通讯社에서 이를 보완하여 2007년 『世界人名翻译大辞典』(中国对外翻译出版公司)과 『世界地名翻译大辞典』을 출판하였다. 중국의 출판물들은 기본적으로 이들 사전에서 제시된 원칙에 기초하여 번역명칭을 정하고 있다. 周定国(2008)『世界地名翻译大辞典』(中国对外翻译出版社) 또한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특히 中国对外翻译出版公司(2007)의 『世界人名翻译大辞典』(中国对外翻译出版公司)에는 「英汉译音表」를 포함, 55개 언어의 음역표가 부록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역표는 제정되지 않았는데 한국인명(지명)과 일본인명(지명)의 대부분이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4) 괄호안의 숫자는 역의 번호이며 이하 동일.

15) 부산교통공사, 「범내골의 유래」 <http://decemberrose71.tistory.com/144>(2015.04.03.)

16) 일제 강점기 때 한글 말살 정책에 따라 순수 한글 지명을 일괄 한자로 표기하면서 우리 지명에는 뜻을 알 수 없는 한자지명들이 나타나게 된다. 전통과 한자에 밝지 못한 하급공무원들이 즉흥적으로 한글 발음에 가까운 한자를 채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凡川도 그러한 예에 속한다.

그런데 역명을 정할 때 범천동을 버리고 범내골을 택한 지명위원회의 의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범내골이라는 순수 한국어 지명이 주는 느낌을 적극 채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凡內谷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지명(凡川)의 한자와 순수 한글지명의 원음을 함께 고려한 번역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러다보니 의미와 원음을 함께 놓쳐버리게 되었다는데 있다. 음역을 원칙으로 할 경우, 凡內가 중국어 발음으로 ‘범내’의 음가에 가까운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凡의 중국어 발음인 ‘fan’은 ‘범’의 발음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 범내를 『英汉译音表』를 기준으로 구성해 보면 本內에 더 가깝다. 따라서 本內谷<sup>17)</sup>, 혹은 本內古尔 등의 번역어가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중국어에는 없는 ‘ㄹ’ 받침을 구현하기 위한 ‘尔’의 활용에 대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부산 지하철 2호선의 못골(214)은 황령산 아래에 큰 못, 작은 못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지명이다. 바로 다음 역명인 大淵 역시 과거의 지명인 큰 못골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얘기된다. 요컨대 보다 넓은 지역에 큰 마을이 형성된 큰 못골의 경우, 大淵洞이라는 행정구역명을 갖게 되었고, 작은 못골은 원래의 명칭으로 불렸던 것이다. 이 못골을 池谷으로 의미역하였다. 의미역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같은 지명 유래를 갖는 大淵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같은 못으로서 이미 못 淵으로 옮겨진 지명에 다시 못 池로 바꿀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淵谷으로 의미역하는 것이 池谷에 비해 적절할 것이다. 보다 적절한 것은 음역을 통해 그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역음표를 기준으로 하면 ‘못’에 가장 근접한 발음은 莫가 된다. 그러니까 莫谷尔, 莫古尔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부산 2호선의 지게골(215) 역의 중국어표기는 支架谷이다. 짐을 나르는 도구로 쓰였던 지게의 지탱하는(支) 틀(架)이라는 뜻과 발음을 동시에 구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전부 명명요소인 지게를 짐을 나르는 도구로 이해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게는 방으로 드나드는 곳에 설치된 외작문이라는 뜻이다. 이 일대의 지형이 산으로 에워싸여 있어서 마치 집안의 방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아 지게골(찌개골)로 불려왔다는 것이다. 이 지게골역은 바로 앞의 역인 門岾과 지명의 유래에 있어서 연관성을 갖는다. 둘 다 문호라는 뜻을 갖는데 지게골은 낮은 지대이므로 골이라 했고, 문현은 높은 지대이므로 고개 岾를 붙인 것이다. 이 두 지명은 또한 밖에서 부산진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뜻을 갖기도 한다. 그러니까 의미역을 한다면 戶谷, 門戶谷 정도로 표기될 수 있는 곳이다. 물론 한글 지명제정의 의도를 존중한다면 음역이 보다 적절하다. 음역할 경우, 『英汉译音表』를 참고하여 吉给谷尔, 吉盖谷尔 등이 가능한 번역어로 제시될 수 있다.

부산지하철 3호선의 물만골(304)은 水满谷로 표기되어 있다. 뜻과 발음을 함께 고려한 번

17) 본래 외국의 지명을 한자로 옮기는 데에는 일자일음의 대원칙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英汉译音表』를 포함하여 다양한 역음표에는 보다 정확한 발음의 구현을 위해 한 발음을 두 글자로 표기하는 예외적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일자일음의 원칙 및 역음표의 활용원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中国地名委员会1981年重新制订出『外国地名汉字译写通则』和英、法、德、西、俄、阿(拉伯)六语种译音表及其他44语种的译音表.规定外语地名汉字译写时要求使用『译音表』,遵循一字一音的原则,按汉语和不同语言对应的译音表来音译地名的专名,意译其通名,用汉语普通话的标准音进行译写.  
[http://blog.sina.com.cn/s/blog\\_94adc0ba01017plh.html](http://blog.sina.com.cn/s/blog_94adc0ba01017plh.html)(2015.05.05.)

역이다. 금련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로서 물이 많아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라는 지명유래가 전한다. 현행 의미역은 이러한 지명유래를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이것을 음역원칙에 따라 옮긴다면 역음표에 따라 穆曼谷尔, 穆曼古尔 정도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의 먹골(718)은 墨谷로 표기되어 있다. 이곳이 봉화산의 참숯을 이용해 먹을 만드는 곳이었다는 데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墨洞으로 불려왔고 현재 중랑구 묵동으로 정식 행정구역의 명칭이기도 하다. 지하철 역명으로 먹골이라는 명칭을 채택했지만, 처음부터 한자명칭인 墨洞이 보다 보편적인 통용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요컨대 사람들은 墨洞에 가기 위해 먹골역에서 내린다. 따라서 의역을 한다면 墨洞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물론 음역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애초 먹골을 지하철 역명으로 정할 때 순수 한국어의 어감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곳은 墨谷尔, 墨古尔로 번역될 수 있다. 이 밖에 『英汉译音表』에 제시된 글자를 따른다면 莫谷尔<sup>18)</sup>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부산의 못골과 번역어가 겹치게 되므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英汉译音表』는 영어발음을 옮기기 위한 기준이므로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원칙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 1호선의 종로삼가(128)역에는 탑골공원이 병기되어 있다. 이에 대한 중국어표기는 塔谷公园이다. 원래 탑골공원은 조선시대 원각사가 있던 자리로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남아 있다는 데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탑의 모양이 뼈의 모양과 같다는 점에 착안하여 塔骨로 표기된 적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塔洞이라 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의미역을 원칙으로 한다면 원래의 한자지명인 塔骨公园, 혹은 塔洞公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중 塔骨은 어감 상 지명으로 쓰이기 곤란하므로 塔洞公园이 가장 적절하다. 물론 탑골이라는 지명표기의 음성적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려면 음역의 방법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이 경우 塔谷尔, 塔古尔 등이 가능한 번역어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3. 고개, 재 등 山系 역명의 번역

한국의 취락은 배산임수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성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마을에는 ‘고개’, 혹은 ‘재’라는 명칭이 붙는 지명이 자주 나타나게 된다. 서울 지하철역의 경우에도 ‘고개’, 혹은 ‘재’를 후부보통명사로 한 지명이 여럿 보인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고개’, ‘~재’를 ‘~岭’으로 옮기고 있다. 의미역에 동의한다 해도 ‘고개-岭’의 번역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岭은 재, 혹은 고개의 뜻을 갖기는 하지만 大关岭, 竹岭 등과 같이 높은 산들로 이루어진 경계를 가리킨다. 그것은 작은 고개인 岬과 구별<sup>19)</sup>된다. 그러니까 길으로 보기에 같은 뜻을 갖는 한자이지만 岭과 岬은 원칙적으로 구분되어 쓰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지명에서도 작은 고개는 阿岬과 같이 岬으로 옮겼다. 물론 南泰岭과 같이

18) 부산지하철 2호선의 못골도 莫谷로 음역된다. 이 경우 상이한 지역이 같은 지명으로 불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점이 고려되어 번역어가 채택될 필요가 있다.

19) 嶺: 山脈之幹系也. 岬: 山小而驗. 中華學術院, 『中文大辭典』(臺灣: 華崗出版有限公司, 1973)

어느 한 쪽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이 두 글자를 혼용한 예외도 있다. 이곳은 원래 여우고개(狐峴)였다가 南泰嶺으로 개명되었다는 야사<sup>20)</sup>를 갖고 있는 곳으로서 서울과 경기도를 나누는 뚜렷한 경계성을 갖는다. 높이만 두고 보자면 峴으로 불러야 하지만,<sup>21)</sup> 그 경계적 기능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지명을 갖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 우뚝 솟은 지형을 표시하는 후부보통명사인 峙가 더해진다. ‘~치’는 ‘~티’로도 불리는데 두 경우 모두 峙의 발음을 표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기본인식에 바탕하여 서울지하철을 살펴보면 당고개→堂嶺, 무악재→毋岳嶺, 버티재→派堤嶺, 한티→漢堤 등이 발견된다.

먼저 당고개를 보자. 당고개는 전국에서 고루 발견되는 지명이다. 대체로 마을과 마을을 가르는 곳에 성황당이 세워졌고 그곳을 성황당고개, 혹은 당고개로 불러왔다는 것이 이러한 지명의 주된 유래가 된다. 서울의 당고개도 미륵당이 있는 고개였다는 지명유래를 갖고 있다. 실제로 이곳은 무속활동이 활발한 곳이었던 것으로서, 김동리의 「당고개 무당」이라는 소설도 이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당고개역(409)을 堂嶺으로 번역하였다. 의미역을 한다면 가장 먼저 과거에 어떤 한자로 표현되었는가 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당고개의 기존 한자 지명은 堂峴이다. 그러니까 의미역이라면 원래의 한자 표기인 堂峴으로 돌아가야 한다. 음역을 원칙으로 한다면 堂谷給, 堂高蓋<sup>22)</sup> 등의 번역어가 제시될 수 있다.

다음으로 3호선 무악재(325)→毋岳嶺의 표기가 있다. 무악재는 원래 한자로 毋岳峴으로 표기되어 왔다. 한양에 도읍을 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 무학대사와 관련이 있다는 유래가 전한다. 또 사람들이 한양으로 들어갈 때 호랑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여럿이 모여 재 넘었다는 뜻에서 ‘모아재’로 불리기도 했다는 지명유래가 전하기도 한다. 이것을 毋岳嶺으로 표기하였다. 무악은 이미 한자 명칭이 있으므로 번역될 필요가 없는 명명요소이고, ‘~재’만 번역하면 되는데 이것을 嶺으로 옮긴 것이다. 毋岳峴의 옛 표기를 가져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물론 음역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이 경우 전부 명명요소의 毋岳이라는 한자어는 그대로 두고, 후부 보통명사만 음역하면 된다. 음역의 원칙에 따른다면 毋岳節, 毋岳宰, 毋岳蔡 등이 가능한 번역어로 제시될 수 있다. 도시화의 진행으로 ‘재’는 고개로서의 지형적 특징을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음역을 통해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보다 원음에 근접한 음역어로 穆阿節로 표기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볼만 하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632)→派堤嶺을 보자. 이곳의 버티는 전부명명요소의 어원이 番盜이다. 그것은 순라꾼이 ‘도둑 잡으라’고 외치는 소리에서 연원한 것<sup>23)</sup>이라 얘기된다. 番

20) 이곳의 원래 지명은 여우고개이고, 한자로는 狐峴으로 표기되었다. 그런데 18세기 말 正祖가 수원에 있는 藏獻世子的 능을 참배하러 가면서 이 고개를 넘을 때 고개 이름을 묻자 신하들이 南泰嶺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여우라는 불길한 짐승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이 불경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그 이후부터 남태령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야사가 있다.

21) 남태령은 180미터이다. 대체적으로 높은 고개를 嶺으로 표현한다고 보았을 때, 이 높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문제가 된다. 어쨌든 남태령은 南泰嶺, 狐峴, 南峴 등으로 불려왔다.

22) 「英漢譯音表」를 유일한 기준으로 한다면 가장 근접한 발음은 高蓋가 된다. 그러나 「英漢譯音表」는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으로서, 한국어의 발음에 가장 근접한 표기가 무엇인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 경우 高蓋 보다는 谷給가 보다 적절한 번역어로 제시되어야 한다.

23) 서울시는 버티고개에 대해 “조선시대 치안을 담당하던 군인들이 한남동에서 악수동으로 넘어가는



이 순번을 돌다, 숙직을 서다는 뜻이므로 이 ‘번도’는 순라꾼의 경고성 구호였던 것으로 보인다. 도둑을 잡는 순라꾼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어 도둑들에게 경고를 하고, 일반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순찰 구호였던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것이 번도→번티→버티의 변천과정을 거쳐 버티고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버티고개를 派堤岭으로 음역과 의미역을 병행하였다. 원래 지명의 어원이 되는 番盜에 ‘도적’이라는 의미가 전달되므로 이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는 이미 伐儿岭<sup>24)</sup> 또는 扶於峙라는 한자 명칭이 있었다. 이 중 음역어인 扶於峙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만하다. 이 扶於峙의 한자표기를 수용한다면 扶於峙谷給, 扶於峙高盖, 등으로 옮길 수 있다. 보다 근접한 발음을 구현할 수 있는 음역어를 새로 찾는다면 博替谷給, 博蒂高盖 등의 번역어가 제시될 수 있다. 博替谷給은 한국어 발음에 보다 근접한 글자를 찾은 것이고, 博蒂高盖는 「英汉译音表」를 충실히 따른 경우이다.

5호선 애오개역(530)의 중국어표기는 儿岭이다. 이곳이 과거 묘지가 많은 고개로서 특히 아이들의 시체를 많이 묻3어서 생긴 지명이다. 그래서 아이고개, 애고개 등으로 불리다가 현재의 애오개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儿岨으로 표기되다가 이후 阿岨으로 바뀐다. 당연히 통용되는 한자명인 阿岨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2호선 아현(242) 역과 혼동되므로 儿岭으로 표기한 것이다. 작은 고개를 岨이라 하고, 큰 고개를 岭이라 한다는 점, 그리고 이곳이 과거 儿岨으로 표기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儿岨으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 阿岨과 혼동될 우려는 없다. 우리 발음으로는 동일하지만 중국어로는 전혀 다른 발음과 뜻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애오개라는 음성정보의 전달이 중요하므로 음역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이 경우 崖伍給, 耶伍給 등의 번역어가 제시될 수 있다.

서울 분당선의 한티(K216)는 ‘큰 고개’라는 뜻을 갖는 역명이다. 이곳의 한자명은 大峙로서 ‘한’의 크다는 뜻을 그대로 옮겼다. 따라서 의미역을 원칙으로 한다면 大峙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것이 3호선 대치역(345)과 혼동된다. 실제로 한티역은 건설 당시 영동역으로 불렸으나 경부선의 역명과 혼동을 피하여 현재의 역명이 채택된 이력이 있다. 이처럼 중복으로 인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한티로 명명하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음역은 적절한 대안이 된다. 한티는 韩替, 韩提 등이 적절한 음역어로 제시될 수 있다. ‘한’은 「英汉译音表」에 제시된 글자를 따른다면 漢이 되지만, 크다는 뜻의 우리말 ‘한’이 ‘韩’으로 표기되어온 관례를 살릴 필요가 있다. 현행의 漢堤도 음성정보의 전달에 문제가 없다. 다만 뚝, 제방이라는 뜻이 살아나 이곳에 뚝이 있다는 불필요한 의미가 생성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3호선 매봉→梅峰으로 옮겼다. 매봉은 임금이 사냥할 때 이곳에서 매를 놓아 꿩을 잡았다

고개에서 도둑을 쫓으며 ‘번도(도둑)’!라고 외치던 것이 ‘번티’에 이어 ‘버티’로 바뀌었다는 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버티고개 가서 앉을 놈--지하철 역이름 속 재밌는 역사」, 「한겨레신문」 (2014.10.08.) [http://cafe.daum.net/sisadebate\(2015.05.05.\)](http://cafe.daum.net/sisadebate(2015.05.05.))

24) 이 지명이 조선초기의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것이라는 설도 있다. 서울의 주산인 북악의 負儿岩이 마치 어린아이가 등에 업혀 밖으로 달아나려는 형상인 까닭에 그것을 막기 위해 떡고개(阿岨)를 두어서 떡을 가지고 아이를 달래 머무르게 하고, 또 남쪽에는 伐儿岭을 두어서 아이가 나가면 벌을 주겠다고 하여 아이를 못나가도록 막았다는 것이다. 그 伐儿岭이 변하여 버티고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는 것이다.

는 유래를 갖는 지명으로 鷹峰으로 표기되어 왔다. 그런데 현재 서울지하철 중앙선에 응봉역이 있으므로 이 지명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전부 명명요소를 음역하고, 후부 보통명사를 의역하여 梅峰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번역어에서 이곳과 무관한 매화 산, 혹은 매화 봉우리는 뜻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를 『英汉译音表』를 기준으로 음역하면 梅蓬, 邁蓬 등이 되고, 美峰도 가능하다. 蓬은 彭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대구지하철에는 1호선의 안지랑골, 큰 고개, 2호선의 반고개, 담티, 대실 등의 순수 한글로 된 산계 지명이 있다. 안지랑골은 고려의 왕건이 후백제 견훤과의 공산전투에서 패배하고 왕지령이(견훤의 아들)을 피해 피신해 있다가 돌아갔다는 지명유래를 갖는다. 대구지하철에서는 한글역명을 음역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영한역음표』에 따라 안지랑골을 安吉朗으로 옮겼다. 마찬가지로 큰고개→肯高盖, 반고개→半高盖, 담티→丹替로 음역하였다. 기본적으로 『영한역음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중 반고개→半高盖는 원래의 지명유래를 고려하여 역음표의 班 대신 半을 택하였다. 반고개는 지형이 험하여 산적이 출몰하던 곳으로 100명 가까운 인원이 모이지 않으면 고개의 절반도 가지 못한다는 유래를 갖는 지명이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지명유래가 함께 전하고 있지만 이 반고개의 ‘반’에는 절반이라는 의미가 분명하다. 다만 高盖는 『영한역음표』를 확고한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 가능한 음역이고, 보다 가까운 발음을 구현할 수 있는 谷給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담티→丹替는 역음표의 蒂 대신 替를 택하였다. 蒂의 중국어 음가는 ‘di’이고, 替는 ‘ti’이므로 보다 근접한 발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대구지하철의 중국어 지명 표기는 그 원칙의 수립과 구체적 실천과정의 탄력적 운용에 있어서 공히 크게 동의할 만하다.

대구 지하철 2호선 대실→大希尔은 특히 주목할 만한 번역이다. 『영한역음표』를 기준으로 하면 達西(尔)가 가장 근접한 음역어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동일한 발음과 한자를 쓰는 대구의 달서구와 겹친다. 蝶希尔, 戴西尔도 가능한 번역이지만 大希尔로 옮긴 것은 이 번역에서 파생되는 긍정적 어감을 취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보다 주목할 것은 ‘ㄷ’ 받침의 음가를 구현하기 위해 ‘尔’을 쓴 일이다. 일음일자의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한국어발음의 중국어 표기를 위한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중국에서는 50여개 언어에 대해 역음표를 제정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역음표를 제정하지 않았다. 역음표는 인명과 지명의 번역원칙으로 제정된 것인데, 한국과 일본의 인명 및 지명은 거의 대부분 한자표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글의 ‘ㄷ’ 받침 등과 같은 독특한 음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국적 현실에서 직접 모색해볼 영역으로 남아 있다. 대실→大希尔의 번역에는 한글지명의 중국어 번역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많은 사항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임해지는 것이다.

전남 광주의 1호선 도시철에는 돌고개역이 있다. 아직 중국어 표기가 병기되고 있지 않지만 대실→大希尔, 반고개→半高盖 등의 번역례를 참고하면 多尔高盖, 道尔高盖 등의 번역어가 제시될 수 있다. 영한역음표에 묶이지 않는다면 高盖를 谷給, 古給 등으로 옮길 수도 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435)의 중국어 표기는 立岩이다. 立岩의 뜻을 갖는 선바위라는 지명은 경북봉화, 강원도 영월, 경북영양 등 전국에 고루 발견된다. 그런데 4호선의 선바

위는 立岩이 아니라 禪岩이라는 한자지명을 갖고 있다. 이곳에 장삼을 입은 중의 모습을 한 바위가 있어서 禪岩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이것을 서울의 경계 밖에 두려 했고, 무학대사는 이것을 서울의 경계 안에 두기 위해 서로 다투었다고 한다. 태조의 결정으로 이 바위가 서울의 경계선으로 정해지자 무학대사는 이제 불교 승려가 서울의 도성을 넘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탄식했다는 전설이 전한다. 따라서 의미역을 한다면 禪岩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물론 한글역명을 제정한 의도를 살리고, 지하철 승하차 지점의 음성적 정보를 전달하려면 음역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바위는 森巴伊, 绅巴伊 등의 음역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6호선에는 독바위(613) 역이 있는데 이것을 瓮岩으로 옮겼다. 이 한자지명은 대동여지도를 포함하여 문자로 표기된 역사가 있다. 따라서 의미역을 한다면 독바위→瓮岩은 적절해 보인다. 음역을 한다면 음역표를 기준으로 德巴伊, 多巴伊 등으로 옮길 수 있다.

서울 5호선 2호선의 까치산역(234-4)은 喜鵲山으로, 7호선의 까치울역은 喜鵲屋으로 의미역되어 있다. 까치산은 전국적으로 다수 발견되는 지명으로서 대부분 까치가 많거나 까치와 관련된 전설이 있어 생긴 지명이다. 그래서 의미역을 한다면 까치산→喜鵲山의 번역은 적절해 보인다. 문제는 7호선의 까치울→喜鵲屋의 경우이다. 이미 까치 고을이라는 의미에서 鵲洞이라는 명칭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한자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호선 부천구간을 건설할 당시 시민들의 공모를 받아 까치울이라는 순수 한글역명을 채택한 곳<sup>25)</sup>이다. 따라서 의미역을 한다면 원래의 한자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물론 까치울이라는 한글역명 제정의 뜻을 살린다면 음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음역한다면 까치산→嘎奇山, 까치울→嘎奇屋尔, 嘎奇伍尔 등의 번역어가 제시될 수 있다.

6호선 돌곶이(643)는 음역하여 多尔谷齊로 옮겼다. 돌곶이는 산의 모양이 돌을 꼬치에 꿰는 것 같다는 데에서 유래한 지명<sup>26)</sup>으로 石串洞으로 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의미역을 한다면 돌곶이→石串, 石串洞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음역은 한글 역명을 제정한 뜻에 부합하고 있어 동의할 만하다. 다만 돌곶이의 후부 발음 ‘~지’를 齊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근접한 吉로 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多尔谷吉가 더 원음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多尔古吉, 德尔古吉, 道尔古吉 등이 가능한 음역으로 제시될 수 있다.

6호선 새절(616)은 賽折로 옮겼다. 이곳의 한자 지명인 新寺로 돌아가면 되지만, 3호선에 新沙역이 있으므로 혼동을 피해 음역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어의 입장에서 보면 新寺와 新沙는 혼동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의미역을 원칙으로 한다면 원래 한자지명인 新寺로 돌아가면 된다. 그러나 역시 음역을 통해 새절이라는 지하철 역명의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 賽折는 가능한 번역어의 하나가 된다. 이 賽折로의 번역에는 한국어 한자발음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국어번역은 중국인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말 한자발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보다 근접한 음가를

25)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6개 역이름 확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16/2011011600975.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16/2011011600975.html)(2015.3.14.) 인용

26) 돌곶이역에는 ‘돌곶이란 말은 이곳 지명이 돌을 꼬치에 꿰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라는 지명유래를 밝히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혹은 ‘돌’이 들(野)의 음변이라 보는 설도 있으나, 한문으로 石串이라 음역할 때에는 돌을 꼬치에 꿰 듯한 지형에서 비롯된 지명이라고 보았던 것은 분명하다.

구현할 수 있는 些澤儿, 协澤儿 등의 번역어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7호선 장승배기(740)→長丞拜基 역시 지명의 뜻과 한자의 한글 발음을 동시에 전달하고자 한 번역에 속한다. 원래 이곳은 옛날에 전국 장승의 우두머리가 있어 장승백이로 불렸다는 지명유래가 전한다. 장승백이의 후부명사인 ‘백이’는 ‘배기’로도 쓰였으며 이것이 쓰인 지명<sup>27)</sup>이 전국적으로 여럿 확인된다. 장승배기는 장승이 박혀있는 장소이라는 뜻이 된다. 전부명사는 원래의 한자어를 쓰고, 후부명사는 음역하여 長丞拜基로 한 것이다. 장승은 통용되는 한자 용어이므로 그대로 쓸 수밖에 없고, 후부명사인 배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의 拜基는 ‘배기’의 발음과 뜻을 함께 구현하고자 한 번역어이다. 그러나 중국인이 이 글자를 읽을 때 원음의 발음이 구현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배기의 중국어 음역으로 被归, 別归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새로 개통되는 대구 3호선 건들바위는 음역하여 根德爾巴伊 등의 번역어가 가능하다.

#### 4. 水系 역명의 번역

물과 관련된 한글역명 또한 다수 발견되는데 부산 1호선의 자갈치(110)→札嘎其, 대구의 성당못(123)→聖堂池, 서울 지하철의 뚝섬(210)→堤島, 뚝섬유원지(728)→堤島遊園地, 잠실나루(215)→蚕室渡口, 연신내(321)→延新川, 학여울(346)→鶴灘, 범계(442)→凡溪, 여의나루(527)→汝矣渡口, 광나루(546)→廣渡口, 굽은다리(550)→曲桥, 샛강(916)→賽江, 노들(918)→鷺得 등이 있다.

이 중 부산 1호선의 자갈치(110)라는 지명은 지금의 충무동 로터리까지 뻗어 있던 자갈밭을 자갈치로 불렀던 데서 유래한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것을 札嘎其로 음역하였다. 굳이 의미 역한다면 小石灘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의 음역어가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ㄹ’ 받침의 음가를 구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음역 외에 札嘎尔奇 등의 음역어가 고려될 수 있다.

대구 1호선의 성당못(123)은 聖堂池로 번역하였다. 원래 이곳의 지명은 길지 명당이라는 뜻을 취했다는 설과 일제 강점기 때 이곳에 있던 천주교 성당이 있었던 데서 유래한다는 설이 동시에 전한다. 聖堂은 원래 사용되고 있던 행정구역명칭의 한자를 그대로 썼고, 후부보통명사 못을 의역하였다. 음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대구지하철의 예외적 번역에 속한다. 그런데 이 성당못의 후부보통명사인 못은 의미가 전달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이곳에는 성당못이라는 수원지가 있고, 현재에도 이 지역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지형 정보에 속하기 때문이다. 성당못(123)→聖堂池의 의미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의 뚝섬(210)→堤島은 뚝을 강둑(堤)으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번역이다. 원래 이 지명은 깃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군대가 출병할 때 치우의 깃발

27) 과거에 솟대(土臺)가 있었던 곳은 그 일부가 솟대배기, 솔대배기, 화주대배기, 화짓대배기, 효대배기, 진대배기, 짐대배기 등으로 지명(地名)만이 남아 있다.

(纛旗)를 세우고 제사를 지냈던 데서 비롯된 지명이라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섬은 아니지만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모양이 섬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울시에서는 2007년 9월 19일, 이러한 지명의 유래를 밝히는 유래비를 세운 바 있다. ‘뚝섬은 조선시대 국왕이 군대를 사열하거나 출병할 때 이곳에 독기(纛旗)를 세우고 독제(纛祭)를 지냈던 곳이라 뚝섬으로 불리게 됐다.’<sup>28)</sup>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것을 堤島로 의미역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잘못된 번역에 속한다. 의미역을 한다면 원래의 한자 표기인 纛島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이곳을 가려고 할 때 ‘깃발 섬’이라는 의미가 중요한가 하는 점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뚝섬이라는 명칭이 한국인조차 강독과 관련된 곳으로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명의 유래를 중국인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역을 통해 지명의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음역표를 기준으로 하면 杜森, 杜申 등의 번역어가 제시될 수 있다. 이곳은 원래 섬이 아니므로 섬→島으로 번역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것은 7호선 뚝섬유원지(728)에도 적용된다. 뚝섬유원지의 현행 중국어표기는 堤島遊園地이다. 이 중 堤島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잘못된 의미역에 속한다. 따라서 의미역을 한다면 纛島의 옛 표기로 돌아가야 한다. 다만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杜森 등의 음역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2호선 잠실나루(215)→蚕室渡口가 있다. 잠실나루는 원래 개통 당시 성내역이었다. 지하철역 가까운 곳에 성내천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이 역명이 강동구 성내동의 지명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아 2010년 잠실나루역으로 개명되었다. 이곳에 잠실섬과 뚝섬을 연결하는 잠실나루가 있었다는 점에 착안한 지명이다. 이 잠실나루는 한자로는 蚕室津으로 표기된 적이 있다. 따라서 의미역을 한다면 원래의 한자지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잠실나루의 후부명명요소인 ‘나루’를 의미역하여 蚕室渡口로 옮겼다. 이렇게 나루를 현행과 같이 渡口로 번역하면 이곳에 지금 나루터가 있다는 두드러진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이 보통명사는 음역을 통해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루’를 음역하면 이곳은 蚕室纳路, 蚕室娜路 등의 번역어로 표기될 수 있다.

광나루(546)→广渡口的 번역에도 같은 문제가 발견된다. 이곳은 广津이라는 한자 명칭이 병용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의미역한다면 广津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한 나루터라는 의미가 정보로 전달될 가치가 크지 않으므로 渡口로 번역해서는 곤란하다. 음역을 한다면 广纳路, 广娜路 등의 번역어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호선 여의나루(527)→汝矣渡口의 경우도 같은 원칙하에 汝矣纳路 등으로 음역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3호선 학여울(346)은 鹤滩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곳이 과거 대동여지도 등에 鹤滩으로 표기되어왔다는 것을 감안한 명칭이다. 의미역의 원칙에서 볼 때 적절한 번역어에 해당한다. 음역의 원칙이라면 전부의 한자어를 살려 鹤尤尔的 번역이 가능하고, 보다 원음에 충실하자면 杭尤尔, 韩尤尔 등도 가능한 번역어로 제시될 수 있다.

4호선 범계는 부산 1호선 범내골과 마찬가지로 호랑이와 관련된 지명을 갖고 있다. 원래 이곳은 호랑이가 많이 출몰하던 지역으로 이조 태조 때 과천면 虎溪里로 명명되었고, 1973년

28) 「서울시 뚝섬에 유래비 설치」『연합뉴스』(2007.09.21.)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070921163409482\(2015.03.21.\)](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070921163409482(2015.03.21.))

에는 안양시 호계동으로 편제되었다. 이곳의 지하철 역명을 범계역으로 하고 중국어표기를 凡溪로 한 것이다. 범계의 한글 지명이 갖는 발음과 뜻을 모두 구현하지 못하는 번역이다. 이것을 의미역한다면 虎溪로 돌아가야 한다. 음역한다면 「영한음역표」를 참조하여 本給, 本盖 등의 번역어가 제시될 수 있다.

3호선 연신내는 延新이라는 한자 지명과 시내를 뜻하는 내의 한글 명명요소가 복합된 지명이다. 이곳은 과거 延臣川이라는 지명<sup>29)</sup>으로 불린 바 있는데, 이후 새로움을 끌어 들인다는 뜻의 延新이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 서울 지하철에서는 처음에 이곳을 한자로 延新內로 표기하다가 이곳의 ‘~내’가 시내를 뜻하므로 內로 쓰는 것은 잘못된 한자표기라는 이유에서 2001년 해당 한자 역명을 삭제한 일이 있다. 현재의 연신내→延新川의 중국어 번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의미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연신내의 유래가 되는 이 시내가 지금도 뚜렷한 지형적 특징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자는 그대로 쓰고 ‘내’를 음역하여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음역의 원칙을 적용하면 이곳은 延新內로 옮겨질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의 잘못된 한자표기와 동일하다.

5호선 굽은다리(550)의 중국어표기는 曲桥이다. 원래 이곳은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곡교리였다가 1963년 서울시에 편입된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곳은 곡교라는 지명과 굽은다리라는 지명이 함께 쓰여온 것이다. 의미역을 원칙으로 할 때 통용되는 한자 지명으로 돌아가는 방안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곳의 굽은다리→曲桥 의미역은 적절해 보인다. 이곳을 음역한다면 古本達利 등의 번역어가 제시될 수 있다.

다음으로 9호선의 샛강(916)을 賽江으로 바꾸었다. 샛강은 본류에서 갈라졌다가 하류에서 다시 합류하는 강을 가리키는 우리말 지명으로서 전국에 동일한 지명이 여럿 있다. 여의도 샛강은 한강에서 갈라져 나온 강이다. 이것을 음역하여 賽江으로 옮겼다. 이 경우 강이라는 지형정보가 현재에도 전달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명이다. 또한 賽가 샛강의 음성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보다 근접한 발음을 구현할 수 있는 些剛, 些綱 등의 번역어가 제시될 수 있다. 些港도 발음을 구현에는 문제가 없지만 항구라는 의미를 생성하므로 취하기 곤란하다.

9호선의 노들(918)은 백로가 노닐던 징검돌이라는 뜻이다. 이 근처에 있던 나루터가 노들 나루이며 이것이 鷺梁津이다. 梁에 징검다리라는 뜻이 있어 이것을 취한 것이다. 따라서 의미역의 원칙이라면 鷺梁의 옛 지명으로 돌아가면 된다. 다만 1호선의 노량진과 겹치므로 이 명칭을 취하기는 곤란하다. 현재의 중국어 역명은 노들의 음성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음역어에 속한다. 「영한음역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庐得가 되어야 하지만, 원래 지명의 유래와 발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鷺得兒의 번역어가 제시될 수 있다.

7호선의 마들(712)은 馬得로 옮겼다. 조선시대의 역참기지로써 말을 키우는 들판이라는 설과 삼밭이 있어서 마뜩이라고 했다는 설이 동시에 전한다. 현재의 음역은 동의할만하며 다만, ‘ㄹ’ 발음을 구현할 수 있는 馬得兒, 馬德兒 등의 번역어도 고려될 수 있다.

7호선의 보라매(742) 역명은 보라매공원에서 유래했다. 보라매는 공군사관학교의 상징이었

29) 인조반정 때 李曙의 지원군이 늦게 도착한 것을 풍자하여 늦게 온 신하라는 뜻에서 延臣川이라는 지명이 붙었다는 지명유래가 전한다.

다. 현재 공군사관학교는 이전하고 이 자리에 없지만 보라매 공원은 그 역사성과 지리적 정보성에 있어서 역명으로 채택되기에 충분하다. 이것을 波拉梅로 음역하였다. 영한역음표를 기준으로 하였고, 원음의 전달에 효과적인 번역어로 수용될 수 있다.

## 5. 도로정보, 기관명 및 기타

지하철 역명은 행정명칭 외에 문화재, 기관 등의 명칭을 주된 명명요소로 하고 있다. 봉은사역을 코엑스역으로 역명을 교체하자는 최근의 논란에도 문화재(봉은사)와 기관(코엑스) 중 어떤 하나를 역명으로 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전제되어 있었다. 문화재는 그 항구성에 있어서, 기관은 이용자의 편의성에 있어서 주된 명명요소가 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의미로서 전달될 필요가 있는 명명요소—주로 후부 보통명사—에 대한 번역현황을 고찰하고, 필요하다면 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선 도로정보를 나타내는 삼거리→三岔路口(丁字路口), 사거리→十字路口, 오거리→五岔路口와 같이 후부명명요소를 의미역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해 보인다. 그것은 전달되어야 할 지형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삼거리의 경우 7호선의 신대방삼거리(741)는 丁字路口로, 인천선의 부평삼거리(I122)는 三岔路口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청(130)→市厅, 성동구청(208)→城东区厅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시청과 구청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시청, 구청은 대한민국의 고유한 행정기관의 명칭이라 번역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현재의 표기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행정기관을 중국에서는 市政府, 区政府로 명명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3호선의 광화문역(327)에는 ‘정부서울청사’가 병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政府首尔厅舍로 표기하고 있다. 원래의 한자표기가 있는 경우에 속하지만 厅舍 대신 办公大楼, 혹은 大楼로 옮기는 방안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4호선 정부과천청사(439)→政府果川厅舍도 마찬가지이다. 적어도 厅舍는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9호선 국회의사당(914)→国会议事堂의 번역은 이에 비해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어로 국회, 혹은 국회의사당(National Assembly)에 해당하는 기관은 人民大会堂이다. 실제로 인민대회, 혹은 인민대회당을 National Assembly<sup>30)</sup>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회와 인민대회가 수행하는 역할이 크게 다르므로 이것을 같은 것으로 대응시킬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표기 외에 다른 방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2호선 교대역(223)에는 법원, 검찰청이 병기되어 있다. 검찰청을 중국어로 檢察厅으로 표기하였다. 여기에 병기된 檢察厅은 재고해볼 여지가 있는 표기이다. 중국에는 이에 해당하는 檢察院이 있다. 그 수행하는 기능도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검찰청은 檢察院으로 표기

30) 정식번역은 The Great Hall of the People이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로 번역된다.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버스터미널의 번역에는 3호선 고속버스터미널(339)<sup>31)</sup>→高速巴士客运站, 2호선 강변역(214)에 병기된 동서울버스터미널→东首尔客运站, 7호선 시외버스터미널(718)→市外高速客运站과 같이 일관되지 않은 번역 표기가 발견된다. 客运站, 혹은 버스터미널임을 강조하는 汽车客运站, 巴士客运站의 어느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7호선의 시외버스터미널은 市外高速客运站보다 长途汽车客运站으로 옮긴다면 역명에 담긴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영어로 된 역명의 중국어 번역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산 2호선의 센텀시티(206), 부산 경전철의 괄법르네시떼, 광주 1호선의 김대중컨벤션센터, 수도권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142)→加山数码园区, 구로디지털단지(九老数码园区), 쌍룡과 병기된 나사렛대학(P171)→拿撒勒大学, 2호선의 2호선 삼성과 병기된 무역센터(219)→会展中心, 6호선의 디지털미디어시티(618)→数码媒体城, 월드컵경기장(619)→世界杯体育场, 에버라인의 전대와 병기된 에버랜드(Y126)→爱宝乐园, 수인선의 남동인더스파크(k256)→南洞产业园区, 인천지하철의 캠퍼스타운(I133)→大学城, 테크노파크(I134)→科技公园, 지식정보단지(I135)→知识信息园区, 센트럴파크(I137)→中央公园 등이 그 예가 된다.

이 경우 영문역명이 고유명사화된 것인지, 일반명사로서 뜻의 전달이 중요한 것인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나사렛대학(P171)은 예수의 출생지를 나타내는 고유명사이므로 拿撒勒로 중국에서 통용되는 음역어를 그대로 썼다. 에버라인의 전대역((Y126)과 병기된 에버랜드→爱宝乐园은 피터팬의 네버랜드를 연상시키는 이름이기는 하지만 고유명사로 명명된 것이므로 현행 음역은 적절해 보인다. 특히 爱宝는 어린이놀이시설로서의 어감까지 함께 전달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역명은 대부분 의미역을 취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정보로 전달하는데 있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른 번역어가 제시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용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만 어느 경우나 음성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음역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에 비해 부산지하철 2호선의 센텀시티(206), 경전철의 괄법과 병기된 르네시떼역에는 중국어 역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중국어로 표기하지 않아도 영어표기만으로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영어는 중국어로 옮겨져 표기되어야 한다. 영어발음이 통용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로마자 표기로 충분할 것이고, 굳이 중국어표기, 일본어표기를 병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센텀시티와 르네시떼 역시 적절한 중국어 역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2호선의 센텀시티는 수영비행장 일원의 부지를 부산시에서 개발하면서 센텀시티로 명명<sup>32)</sup>하였던 데서 비롯된다. 말하자면 이 지역에 대한 고유명사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센텀(centum)에 담긴 의미는 굳이 전달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티는 도시의 의미를 전달하는

31) 3호선(339), 7호선(734), 9호선(923)이 교차하는 역이다.

32) 센텀시티는 2000년 부산시에서 택지를 조성하면서 명명한 지역명칭이다. 현재 아파트 단지와 주상복합 건물, 공공건물이 입주하여 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수영만 매립지를 마린시티로 명명하여 초고층 빌딩을 입주시킨 바 있다. 이 두 작은 도시는 현재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城으로 의미역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센텀시티에 대해 어떠한 번역이 가능할까? 「영한음역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森登城, 森滕城 등의 음역어가 제시될 수 있으며, 발음과 파생되는 어감을 고려하여 仙登城, 仙騰城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부산 경전철의 패법과 병기된 르네시페는 원래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의 ‘RENE’와 유통 복합체를 의미하는 ‘CITE’의 합성어로서 불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두 의미가 합성되기는 했지만 고유명사이므로 그 의미가 전달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에 근접한 음역어를 찾아내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日内西德, 혹은 日内西特 등의 번역어가 제시될 수 있다.

## 5. 결 론

이상으로 전국 지하철 역명의 중국어 번역에 대한 실재와 문제점, 그 대체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고찰은 순수 한글지명의 경우 음역을 통해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한국과 중국의 지명표기의 대원칙이기도 하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에서는 지명유래를 드러내기 위해 한글역명을 의미역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부산 지하철 역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음역의 대원칙을 보완하는 것이라면 의미역도 충분히 고려되어 병행될 수 있다. 특히 의미역을 할 경우 그 한글 지명과 병용관계에 있는 한자지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지명의 유래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적 경우를 살펴보면 의미역을 하면서 기존의 한자지명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지명의 유래를 잘못 이해한 경우, 한자를 잘못 적용한 경우 등이 다수 발견된다.

음역을 할 경우, 한글 발음에 대한 별도의 중국어 표기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英汉译音表」를 충분히 참고하면서 구체적 실천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후부 보통명사를 의미역할 것인지 아니면 원음을 그대로 옮길 것인지 하는 점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자연적 지형을 드러내는 후부 보통명사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그 지형적 정보성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후부 보통명사가 해당 지역의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면 전체 지명을 음역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적 번역례를 살펴보면 과거의 지형적 정보를 담고 있는 지명을 나루→渡口, 다리→橋, 샛강→江, 내→川, 못→池 등으로 일괄 의미역하고 있다. 대구 지하철의 성당못→聖堂池와 같이 그 지역의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의미역이 필요하지만, 여의나루→汝矣渡口 등과 불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관공서와 기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응되는 기관의 명칭으로 옮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어식 지명을 중국어로 표기할 경우, 그것이 보통명사인지 고유명사인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한다. 보통명사라면 의미역이 적절할 것이고, 고유명사라면 음역이 필요할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어 병기를 원칙으로 하면서 영어지명을 번역하지 않는 경우이다. 부산의 센텀시티와 르네시페 역이 이에 해당하는데 센텀시티의 경우, 仙登城,

仙騰城 등과 같이 음역과 의미역을 병행한 번역어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고, 르네시테의 경우 日内西德, 혹은 日内西特 등의 음역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어 번역에 있어서 그것이 음역이든 의미역이든 통일성의 구현은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버스터미널의 동일한 후부 보통명사를 巴士客运站, 高速客运站, 客运站 등으로 각기 다르게 표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汽车客运站이든 어떤 다른 표기이든 통일된 표기가 필요하다. 삼거리를 三岔路口와 丁字路口로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 바, 어느 한쪽으로 통일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골→谷尔’, ‘고개→谷给’, ‘바위→巴伊’, ‘내→内’ 등과 같이 음역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자주 나타나는 이러한 후부 보통명사에 대해 음역어의 통일을 위한 공감대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 영한역음표>

英汉译音表																									
	輔 音	b	p	d	t	g	k	v	w	f	z dz	ts	s ð θ	ʒ	ʃ	dʒ	tʃ	h	m	n	l	r*	j	gʷ	kʷ
元音		布	普	德	特	格	克	夫 弗	夫 弗	夫 弗	茲	茨	斯 絲	日	什	奇	奇	赫	姆	恩	爾	爾	伊	古	庫
ɑ: æ ʌ	阿	巴 芭	帕	達	塔	加	卡	瓦 娃	瓦 娃	法 娃	扎	察	薩 莎	扎	沙 莎	賈	查	哈	馬 瑪	納 娜	拉	拉	亞 婭	瓜	夸
e / ei	埃	貝	佩	德 特/ 泰	蓋	凱	韋	韋	費	澤	策	塞	熱	謝	傑	切	赫/ 黑	梅	內	萊	雷 蕾	耶	圭	奎	
ɜ: ə	厄	伯	珀	德	特	格	克	弗	沃	弗	澤	策	瑟	熱	舍	哲	徹	赫	默	納 娜	勒	勒	耶	果	闊
i: ɪ j	伊	比	皮	迪	蒂	吉	基	維	威	菲	齊	齊	西	日	希	吉	奇	希	米	尼 妮	利 莉	里 麗	伊	圭	奎
ɒ ɔ: / ou o əʊ	奧/ 歐	博	波	多	托	戈	科	沃	沃	福	佐	措	索	若	肖	喬	喬	霍	莫	諾	洛	羅 蘿	約	果	闊
u: ʊ	烏	布	普	杜	圖	古	庫	武	伍	富	祖	楚	蘇	茹	舒	朱	楚	胡	穆	努	盧	魯	尤		庫
ju: jʊ	尤	比 尤	皮 尤	迪 尤	蒂 尤	久	丘	維 尤	威 尤	菲 尤	久	丘	休		休	久	丘	休	繆	紐	柳	留			
aɪ	艾	拜	派	代 戴	泰	蓋	凱	韋	懷	法	宰	蔡	賽		夏	賈	柴	海	邁	奈	萊	賴	耶	瓜 伊	夸
au	奧	鮑	保	道	陶	高	考	沃	沃	福	藻	曹	紹		紹	焦	喬	豪	毛	瑤	勞	勞	堯		闊
æŋ ʌŋ an æŋ	安	班	潘	丹	坦	甘	坎	萬	萬	凡	贊	燦	桑		尚	詹	錢	漢	曼	南	蘭	蘭	揚	關	寬

a:n auŋ ʌŋ ɔ:n ɒŋ ɔŋ	昂	邦	龐	當	唐	岡	康	旺	旺	方	藏	倉	桑	讓	尚	章	呂	杭	芒	南	朗	朗	揚	光	匡
en eŋ ɜ:n ən əŋ	恩	本	彭	登	滕	根	肯	文	文	芬	曾	岑	森	任	申	真	琴	亨	門	嫩	倫	倫	延	古	恩
in i:n iən jən	因	賓	平	丁	廷	金	金	溫	溫	芬	津	欣	辛		欣	金	欽	欣	明	寧	林	琳	林	琳	古
ɪŋ	英	賓	平	丁	廷	京	金	溫	溫	芬	京	青	辛		興	京	青	興	明	寧	林	琳	林	琳	古
u:n uŋ ouŋ	溫	本	蓬	敦	通	貢	昆	文	文	豐	尊	聰	孫		順	準	春	洪	蒙	農	倫	倫	雲		
uŋ	翁	宏	邦	蓬	東	通	貢	孔	翁	翁	豐	宗	聰	松	容	雄	瓊	瓊	洪	蒙	農	隆	龍	永	

## 【참고문헌】

- 문화관광부(200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제2000-8호.)(로마자 표기법)  
서울특별시, 「서울시 외국어(중국어) 표기기준」,  
dictionary.seoul.go.kr/spelling/html/page/notation2(2015.05.05.)  
음성원(2014), 「지하철 역이름 속 채뵈는 역사」『한계레신문』(2014.10.08.)  
cafe.daum.net/sisadebate(2015.05.05.)  
부산교통공사, 「범내골의 유래」 decemberrose71.tistory.com/144(2015.04.03.)  
中国地名委员会(2005), 「外国地名汉字译写通则」  
wenku.baidu.com/view/19e03704cc17552707220825(2015.03.21.)  
中華學術院(1973), 『中文大辭典』, 崗出版有限公司  
中国地名委员会(1983), 『外国地名译名手册』, 商务印书馆  
新华通讯社译名室(2007), 『世界人名翻译大辞典』, 中国对外翻译出版公司  
周定国(2008), 『世界地名翻译大辞典』, 中国对外翻译出版社  
民政部地名研究所(2012), 『外语地名汉字译写导则国家标准应用手册』, 中国质检出版社  
钟琳娜(2015), 「中国的汉译外语地名」『中国地名』 2004年06期,  
blog.sina.com.cn/s/blog\_94adc0ba01017plh.html(2015.05.05.)  
中国地名研究所(2005), 「民政部外交部关于韩国首都汉城中文译名变更为“首尔”的通报」(民发〔2005〕149号)  
dms.mca.gov.cn/article/flfg/xzfg/201407/20140700663338.shtml(2015.03.21.)

##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한글	지하철, 의역, 음역, 원 역명, 중국어 역명, 영한역음표
	영문	Subway, liberal translation, transliteration, origin of the place name, place name in Chinese characters, Template(英汉译音表)

**A Research on the place name in Chinese characters of Subway Hangul name**

Kang, Kyong-Koo

Seoul Metro has set up a principle of liberal translation on naming its stations that it will use thematic role in naming stations in Korean to reveal the origin of the place name and is abiding by the principle. Busan Humetro also applies the same principle. In the view that it can complement the broad principle of transliteration, the thematic role can be fully considered and used in parallel as well. Especially, when thematic role is used, the place name in Chinese characters should be considered first. Furthermore, accurate understanding on the origin of the place name should be sought.

However, when looking at closely, there are mistakes in many cases, such as that, the existing Chinese character place names are not considered in thematic role, or the origin of place names are misunderstood, or Chinese characters are wrongly applied.

In case of transliteration, there is no independent standard on writing Chinese characters for Korean pronunciation. Therefore, a definite implementation scheme which fully reflects 「Template(英汉译音表)」 should be sought. Particularly,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common noun at the rear should be thematically translated or its original pronunciation be written as is. In common nouns at the rear which reveal the natural topography,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 common nouns at the rear have lost the topographic informativity. Therefore, it would be appropriate to do transliteration for the whole place name in case the common noun at the rear does not contain the information of the relevant region. However, looking at the actual translation examples, the place names containing the old topographical information were thematically translated uniformly, for example, 나루(ferry)→渡口, 다리(bridge)→橋, 샛강(side river)→江, 냇(stream)→川, 못(pond)→池, etc. In the cases that the station name contains the needed information, for example, 성당못(Catholic church pond)→聖堂池 in Daegu Subway, the thematic role is necessary,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veying unnecessary information, like, 여의나루(Yeouinaru)→汝矣渡口.

In contrast to this, for the cases of public offices or institutions, it is basically necessary to transfer into corresponding offices or institutions in China. Presently, it is written literally as 시청(city hall)→市厅 or 구청(borough office)→区厅, but a way to change this to 市政府, or 区政府 should be considered. It would also be proper to write 검찰청(Public Prosecutors' Office) to 检察院, rather than 检察厅. In cases that the Chinese character writings are not commonly used, like 政府厅舍, It would be also appraite to try to find words which are commonly used, like 政府办公大楼, rather than writing as 厅舍. However, for the institutions like 国会议事堂, which does not exist in China, should be treated as exceptions. It would be

awkward to translate it into 人民大会堂 overly. Because their roles are completely different each other.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writing an English word place name into Chinese,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it is a common noun or a proper noun. If it is a common noun, thematic role would be appropriate, and if it is a proper noun, transliteration should be done. The most problematic cases are when Chinese characters are written together while the English word place names are not translated; Centum City and Renecite Station fall under this category. For Centum City, translated words such as 仙登城 or 仙騰城, which have transliteration and thematic role together, could be suggested, and for Renecite, transliterations such as 日内西德 or 日内西特 could be suggested.

In translating Chinese word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have uniformity whether it is by transliteration or by thematic role. For the case of 버스터미널(bus terminal), it would be embarrassing to write differently, like, 巴士客運站, 高速客運站, 客運站, etc. It is necessary to unify into one expression of, for example, 汽車客運站, or something else. Sometimes 삼거리 (three way intersection) is written differently as 三岔路口 and 丁字路口, and this should also be unified. Besides, there are cases where the possibility of transliteration was suggested, like, 골(valley)→谷尔, 고개(pass)→谷给, 바위(rock)→巴伊, or 내(inside)→內. In these cases where the common nouns at the rear appear frequently, it seems necessary to form a consensus to unify the transliteration.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강경구 / 姜鯨求 / Kang, Kyong-Koo
	소 속	동의대학교 중어중문학과
	Em@il	kkkang@deu.ac.kr
	주 소	(생략)
	전화번호	(생략)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5년 4월 30일
	심 사 일	2015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22일